

## 표준어, 표준 발음과 국어 생활의 실제

宋 喆 儀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필자는 이 글에서 필자 자신이 겪어 온 국어 생활의 실상을 소개하고 우리의 국어 생활에서 제기되는 한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주로 소리 언어에 관련된 것들로 한정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말에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언어, 즉 구어(口語)와 문자로 쓰여지는 문자 언어, 즉 문어(文語)가 있다. 소리 언어를 입말, 문자 언어를 글말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말에 소리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듯이 표준어에도 소리 표준어와 문자 표준어가 있다. 소리 표준어와 관련된 규정으로서는 '표준 발음법'이 있고 문자 표준어와 관련된 규정으로서는 '한글 맞춤법'이 있다. '明'을 뜻하는 국어 단어를 '밝다'로 표기하도록 한 것은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박따'로 발음하도록 한 것은 표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필자는 명색이 대학의 국어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표준어,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표준어, 표준 발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그것이 입에 익지가 않아서 그렇다. 물론 그렇다고 필자가 방언 화자나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표준어를 쓰기는 쓰는데 방언적인 요소를 말끔히 씻어 버리지 못한, 말하자면 얼치기 표준어 화자인 셈이다.

필자는 충청도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다.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다. 따라서 필자가 먼저 습득한 말은 충청도 방언이었다. '형'을 '성', '고구마'를 '감자'라 했고 '삼촌'을 '삼촌', '화장실'을 '뒤킴'이라 했으며, '그러면 안대유, 워치기 그럴 수가 있대유, 밥 아직 안 먹었슈' 이런 말을 쓰며 자랐다. 라디오 같은 것도 없었으니 표준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순수한 방언 화자로 자란 셈이다.

표준어를 처음 접한 것은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교과서를 통해서였다. 담임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서울 말씨를 쓰셨다. 서울 말씨를 좀 쓴다고 해서 곧 표준어 화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때 그 선생님의 말이 꼭 표준어였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쓰셨던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선생님을 통해서는 소리 표준어를, 교과서를 통해서만 문자 표준어를 접하게 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필자의 말씨를 바꾸게 하지는 못하였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자 표준어는 국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었지만 소리 표준어는 전혀 익힐 수가 없었다. 물론 문자 표준어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익혔다. 국민 학교 4학년 때인가의 일기책에는 '매형'을 '매양'이라고 적어 놓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교과서에 매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었던 모양이다.

시골에서 국민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읍내로 진학하였다. 읍내에는 표준어에 가까운 말씨를 쓰는 사람들이 좀더 많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필자의 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여전히 표준어로 말하는 교육은 하지 않았다. 표준어를 쓰도록 권장하거나 강요하는 일도 없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늘 사투리를 썼다. 다만 한 가지 경우 예외가 있었다면 학급회의 등 회의를 할 때였다. 이때에는 '했슈'하는 식의 말씨가 아니라 '했습니다'하는 식의 말씨를 사용했다. 이런 말씨는 충청도 방언의 말씨는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표준어식 말씨였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경험으로 표준어를 익힌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일상 대화에서 그런 말씨를 썼다면 정말 웃긴다고들 그랬을 것이다. 주위의 분위기가 그러한 데다가 표준어를 입으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 표준어가 입에 익을 리 없었다.

따라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가 말씨의 문제였다. '충청도서 왔슈. 경북궁이 워디 있대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서울 사람들은 곧잘 웃곤 하였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뒤간이 워디 있 대유?’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요절복통했을 것이다. 나한테는 조금도 우스울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필자의 그런 말씨가 우습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하기는 지금의 필자라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웃음을 머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어린 마음에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웃고 야단일까’ 하는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웬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남달리 숫기가 없어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서울에 왔으니 서울 말씨를 쓰기는 써야 하겠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 ‘네, 아니에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씨를 바꾸자니 어쩐지 스스로 낮간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충청도 말씨를 그대로 쓰자니 사람들이 자꾸만 웃을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해서 여간 마음의 갈등을 겪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밖에 나가면 말하기를 기피하였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를 않고 그냥 눈치껏 행동하였다. 그러다 보니 낭패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서울 사정에 어두울 때였으니 안 그랬겠는가. 어떤 때는 이삼십 분이면 갈 수 있는 데를 한 시간 이상 찾아 헤매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버스를 정반대 방향에서 타는 바람에 종점까지 갔다가 되돌아 오기도 하였다. 버스에 분명히 가고자 하는 지명이 쓰여 있어서 올라탔는데 가도가도 가고자 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 때의 답답함이란. 서울이란 데는 역시 우리 같은 시골뜨기가 살 데는 못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작용한 때문일까. 답답하고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하루 하루를 꾸려 나가다 보니 차츰 서울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말씨도 조금씩 서울 말씨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네’라는 말이 그렇게 입에 설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게 되었고, ‘했어요’ 하는 식의 말씨가 별로 서툴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골뜨기가 서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에서 ‘ㅂ’이 ‘ㅁ’을 만나면 ‘ㅁ’으로 동화되고(밥만 → [밤만]) ‘ㄷ’이 ‘ㄴ’을 만나면 ‘ㄴ’으로 동화되듯이(듣는 → [든는])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들 틈에 섞이니 자연히 서울 사람으로 동화되어 간 셈이다.

그러나 한동안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말을, 시골에 가 있을 때는(방학 때는 시골에 내려가 있었다.) 시골말을 썼었다. 서울에 올라온 후 2,3년간은 그러지 않

았나 싶다. 그러다가 서울말을 쓰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시골에 내려가도 주로 서울말을 썼다. 물론 완전한 서울말은 아니었지만.

서울말을 배운 지 10년이 채 못 되어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다. 군대에 입대하니 또 다시 말씨를 바꾸어야 했다. 군대에서는 군대식의 말씨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하세요,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십시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만 했다. 행동만 절도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까지도 절도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군대인가 보았다.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서울말을 배울 때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군대말을 배우는 것도 하루 아침에 잡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가끔 '했어요' 하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조교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기도 하였다. 훈련병들에게 있어서 조교는 하느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는데, 기껏해야 1,2년 먼저 입대한 사람들이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줄은 군대에 와서야 처음으로 실감하였다.

2년 반 동안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복귀했는데 갑자기 원상복구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머리였고 다른 하나는 말씨였다. 짧은 머리가 입대하기 전 정도로 기는 데는 서너 달이 걸렸다. 말씨가 원래 상태로 되 돌아 오는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가끔 학기 초에 복학한 학생이 찾아와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딱딱한 말투로 말을 하면 농담처럼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구먼.'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한 때는 저랬겠거니 하는 생각에 속으로 웃곤 한다. 제대하고 나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 이후 오늘날까지 대체로 서울말을 쓰면서 살아왔다. 우리의 표준어는 서울말을 근간으로 한 것이니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써 온 셈이다. 여기서 '표준어에 가까운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필자의 말에는 아직도 표준어, 혹은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요소가 적지 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 3

필자가 흔히 표준어, 표준 발음법과 다르게 발음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꽃이/꽃을 ; 발이/발을 ; 무릎이/무릎을 ; 흙이/흙을 ; 값이/값을' 등을 '꼬치/꼬출 ; 바치/바틀 ; 무르피/무르플 ; 흘기/흘글 ; 갑씨/갑쓸'로 발음하지 못하고 '꼬시/꼬슬 ; 바시/바슬 ; 무르비/무르블 ; 흐기/흐글 ; 가비/가블'로 발음한다. 중부 방언에서는 대체로 '꽃, 발, 무릎, 흙, 값'과 같은 단어들이 '꽃, 밧,

무름, 흑, 갑'과 같은 형태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필자는 재구조화된 쪽으로 발음이 익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표준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무언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됐다'도 필자에게는 제 음가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다. '됐다' 또는 '됐다'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돼지'의 '돼'는 제 음가대로 잘 발음이 되는데 '됐다'의 '돼'는 왜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웨'나 '데'로 발음되는지 의문스럽다. 물론 어느 정도 짐작 가는 바가 없지는 않다. '개다'의 활용형 '개어, 개었다'가 수의적으로 '어'를 탈락시키고 '개, 갸'로도 실현되는 것과 같이 '되다'의 활용형 '되어, 되었다'에서 '어'가 수의적으로 탈락하면 '되, 났다'가 되는바, 이들의 발음은 '웨, 됐다'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외'를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이중모음 '웨'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됐다'에서 반모음 'w'를 탈락시키고 발음하면 '됐다'가 된다. '났다'를 '났다'로도 발음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사실 표준어에서의 '되다'의 활용형 '돼, 됐다'는 공식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시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형태들이다.

어미 '-고'와 특수 조사 '-도'도 '-구', '-두'로 발음하기가 일쑤다. '가고 싶다'를 '가구 싶다'로, '나도 가야지'를 '나두 가야지'로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영이는 두 시에 갔고요 순이는 세 시에 갔어요'와 같은 문장에서는 '-고요'를 '-구요'로 발음해야 자연스럽게 '-고요'로 발음하면 아주 어색하게 들린다. 필자로서는 이런 경우에 '-고요'라고 발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로는 '-고요'가 맞을 것이다. 이 '-고/구, -도/두'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비어두 음절에서 일어난 '오'우의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 표준어에도 그런 변화를 경험한 단어들이 적지 않다. '싸호다'싸우다, 비호다'배우다, 가도다'가두다, 즈조'자주, 나모'나무……' 등이 그런 예들이다. 그런데 충청도를 포함한 중부 방언에서는 표준어에서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위에서 언급한 '-고>-구, -도>-두'라든가 '삼촌'삼촌, -(으)로>-(으)루, 새로'새루' 등은 표준어에서는 그 변화가 인정되지 않지만 중부 방언에서는 대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다.

그밖에 '네가'('나'의 주격)를 '니가'로 발음한다든가, '저의 학교'를 '즈이 학교'로 발음한다든가, '하다'의 '하-'를 '허-'로 발음하는 것들도(시간도 없을텐데 뭐 허러 왔어?) 필자의 발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준어와는 다른 발음들이다. 세세히 검토해 본다면 이밖에도 표준어 규정이나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게 말하거나 발음하는 예들이 더 있겠지만 이 정도로만 보더라도 필자가 정확한 표준어 화자

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위에 제시한 예들 중 어떤 것들은 조금만 주의하면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 것들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4

오랜 동안 정규 교육을 받았고 또 대학에서 국어와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진단해 보건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는 스스로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을 대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에는 그러한 규정에 맞추어 말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둘째는 우리 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국어 교육은 읽기와 쓰기에만 치우쳐 있고 말하기는 등한시해 왔다. 읽기, 받아쓰기, 글짓기 등을 통해서 문자 표준어를 익히는 훈련은 제대로 받아왔지만 소리 표준어를 익히는 훈련은 받아 본 적이 없다. 지금은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필자가 받아 온 교육 과정에서는 그랬다. 셋째는 글을 쓸 때 맞춤법이 틀리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말을 할 때 발음이 틀린다고 표준 발음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풍토도 그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넷째는 서울에 여러 지방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울 사람들조차도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표준어를 정확히 사용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가게 될텐데, 지금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아나운서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표준어 규정이거나 표준 발음법에 정확히 맞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 5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에 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표준어를 올바르게 사용하

지 못하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어 규정 해설'(국어연구소 간행, 1988)에서는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표준어를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규정이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표준어 규정이나 표준 발음법도 하나의 규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는 사회의 범규를 지켜야 하듯이 말을 할 때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켜서 말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맡김으로써 끝날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이 표준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 표준어로 말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서울에 와서 상당 기간 동안 살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표준어(소리 표준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혹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규나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규나 규정이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마련되고 때로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표준어 규정이나 표준 발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표준어(혹은 서울말)의 사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보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최근에 필자는 학생들이나 주위 분들의 발음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기도 하고 발음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보기도 하였는데 '무릎이'나 '뻘다'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필자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다. '무릎이[무르피] 아프다'보다는 '무릅이[무르비] 아프다'가 더 자연스럽고, '뻘다'로 발음하는 것보다는 '뻘다'로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뻘다'의 경우는 표기대로 발음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관찰이기 때문에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좀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서울 사람들의 표준어 사용 실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발음이 어떤 상황

에 와 있는지 세대별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어 규정이나 표준 발음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